

목어

오, 저 우리들의 소가...

한국사람만큼 소를 속속들이 아는 민족도 드물다. 여기서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안다거나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각적으로 꼬리발 안심 등심 아롱사태 따지며 맛을 구분하고 골라 즐길 줄 안다는 뜻이다.

쇠고기를 30가지 넘게 부위별로 구분, 부위별 맛에 따라 요리법을 달리하는 한국 쇠고기요리를 보고 외국인들은 신기한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농사일이다 뭐다 하며 뼈빠지게 봉사해 준 다음 소는 사람들에게 "무엇하나 버리지 않고 아끼없이 주고 가는" 그야말로 보살 같은 존재다.

몇년 전 그런 소 가운데 한 마리를 한국인들이 자비함에 겨워 아사위에서 구해 돌봐 주었고 매스컴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다. 홍수에 떠내려가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도(留島)란 이름의 무인도에 올라 오도가도 못하던 한마리의 소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소값이 폭락, 전국의 소가 일제히 도살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수많은 소들은 수척한 몸에서 며칠을 굶고 죽을 운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성. 그 모순의 극명함이어...

지금 한국의 소들은 구제역이란 질병 때문에 따뜻한 치료 한번 받는 바 없애고 그냥 대량으로 도살되어 땅구렁이를 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당연히 축산업자들의 곤경과 경제의 주춤에 먼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번쯤 진지하게 '소'를 생각해 보자. 한두교에서는 소를 '3백13의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 짓는 일과 노역 외에 살우(殺牛)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 인도에는 '늙어 버림받은 소'를 보호하는 양노우원(養老牛院)격의 아슈람이 수백 곳을 헤아린다.

그렇게 극단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혹시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 소 구제역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해 보자는 것이다.

불교에도 성스러운 소가 나오고 '십우도(十牛圖)'는 깨우침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가.

김정자(인문인·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 02-737-8881
본지 신문윤리위원회 및 그 실천 방안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opia.com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재가불자 信·解·行’ 설문으로 본 신행문제점

가르침보다 가피력에 의지

6월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와 박수호(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신앙형태'를 통해 밝힌 불자들의 두드러진 신행형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다는 부처님에게 직접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 승가를 통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직접적인 교통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력신앙적 경향이나 붓다의 신성화 및 절대화 경향으로 해석된다.

개인주의적 신앙 많아

연구법과 사성제 등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 부처님의 원력에 대한 질문에 81.6%가 '믿는다' 답하여, 한국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직접 의지하는 경향이 강함을 드러냈다.

이런 신행형태는 한국불교가 기독교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한 결과로 해석되며 자칫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상

구부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众生)' 하는 불교 특유의 신앙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사회전체의 복을 빌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을 추구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신행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신행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 △타력적 믿음구조를 전통적인 대승적 믿음구조로 회복 △개인적 신행을 사회적 차원의 신행으로 확립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그 동안 불교대학 등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결과도 잘못됐음을 드러냈다. 현대적 지식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재가불자의 경우 불교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가불교의 지식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불교 불리우려는 한국 불교의 특성답게 불자들은 참선, 염불, 필수행, 법회참석, 예불, 독경, 사경, 방생, 단체활동 등을 다

양하게 하고 있지만 과반수이상의 불자들이 자신의 신행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73%의 불자가 자신의 신행활동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혀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행혁신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가불자 교리교육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불자들의 신행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믿음의 차원, 이해의 차원, 실천의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했으며, 설문문항도 한국불교의 문화 및 전통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확정된 다음 구조화 하여 신행의 경향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중앙신도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가신도교육의 기본 커리큘럼 및 재가신도 신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동현 중앙신도회 기획실장은 "신행혁신을 통해 우리사회의 주류사상에서 밀려나고 있는 불교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불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 주요 행사

Table with 4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Lists various Buddhist event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Seoul, Gyeonggi, and Jeolla.

경허·용성스님 한국선 재역사 열어

10 한국 근대선의 부흥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불교에 가해진 조선 왕조의 처절하지만 참혹한 탄압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녔다면 불교의 여러 종파를 해체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져 한 사람에 선과 교, 그리고 염불을 아우르는 삼문수업의 종조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승려 한 개인으로 국한되어 말하면 선을 수행하는 스님이 교학을 공부함은 물론이요 염불까지 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선 후기 불교의 모습은 좋게 말해서 원융불교라 칭할 수도 있었지만 나쁘게 말해서 무종파적이며 수행 가풍이 무질서한 불교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힘들며, 안타깝게도 조선 말기의 승가 풍

토는 후자의 양상으로 변모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사원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사원의 구조를 보면 보통 하나의 개별 사원에 선당과 강당, 그리고 염불당이 공존해 있었다. 그러니 조선시대 선원은 독립된 영역에서 청규를 중심으로 꾸려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의 강당과 염불당 속에서 선당의 형태로 존재 이유를 확보한 것이다. 끝내 이러한 종조는 조선 말기에 이르러 호남지역의 대승사찰과 백양사 등 극히 일부의 사찰과 스님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유수한 대찰에서도 선을 닦는 스님은 하나도 없고 염불하는 스님들로 가득찬 현실로 치달았다. 염불당을 중심으로 사원이 운영되어 한국불교의 선 수행 가풍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혜성 같이 나타나 한국불교의 활발했던 선풍을 다시금 일으킨 거장이 경허(鏡虛)스님(1846~1912)이다. 1879년 동학사에서 스님의 오도를 계기로 한국선은 새로운 역사를 열기 시작했다.

경허스님은 오도 이후 연암산 천장암을 중심으로 悟後 보림하면서 인근의 부석사, 수덕사, 개심사, 정혜사, 마곡사, 법주사 등을 오가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1898년까지 전국 사찰에 선원이 개창된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선원이 문을 열고 선종이 진작되는 시기는 경허스님이 1899년 불해인사로 와서 修禪社를 창설하고 그해 겨울 퇴설당에서 定結社를 결성하면서부터라 하겠다.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서 대종스님들과 함께 정혜결사를 맺고 결사문을 지을과 동시에 청규에 따라 수선하는 결사 운동을 벌이고, 선법의 조실로서 남자를 제법하면서 정진했던 것이다. 해인사 퇴설당은 이렇게 경허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여러 대종스님이 청규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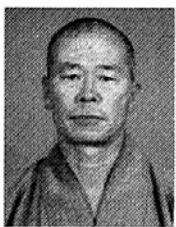
고명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과장

참선에 든 여법한 최초의 근대 선원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이후 1903년 까지 경허스님은 법어사, 통도사, 송광사, 태안사, 대승사 등 영호남의 주요 사찰을 역방하면서 선풍을 일으키는 선원을 개원하게 된다. 한국선을 부흥시킨 또 하나의 인물이 용성(龍城)스님이다. 용성스님도 1886년에 낙동강변에서 오도 이후 전국을 주유하면서 경허스님과 비교하여 오지에 선원을 창설하기도 하고 주요 선원의 조실 및 입승을 지내면서 선풍을 진작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풍의 영향으로 1898년부터 1910년 사이에 창설된 선원은 퇴설당 선원을 비롯하여 40여개로 추정되며 1913년에는 72개의 선원으로 불어났다. 1913년 《해동불교》의 기사를

보면 건봉사를 제외한 각 본말사에 있는 염불당을 모두 선당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기로 결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8년에는 73개의 선원이 있었는데, 당시 평안남도도 함경북도도 제외하고 모든 도내의 본말사에 오롯이 선원이 자리를 틀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오도를 향한 수선이 이어졌다. 경허스님의 전법 제자로는 경허의 세 달로 불리는 水月, 慧月, 澈空 그리고 慧峰스님이 있으며, 이 밖에도 漢岩, 枕雲, 南泉, 靈山 등이 스님의 법을 이었다. 한편 경허스님의 선풍은 한국 불교의 근대사를 개척한 많은 인물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惺月, 鶴鳴, 靈可, 泰秀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근대 선원의 조실로서 한국선을 이끌어갔다. 한편 용성스님 문하에서는 아홉 제자로 불리는 東山, 東庵, 仁谷, 雲庵, 慧龍, 韶天, 古庵, 慈雲, 東軒스님이 나왔으며, 性徹스님도 용성 문하의 대표적인 거장이 분명하다. 이들 기라성 같은 중장들이 1920년, 30년대에 선학원 운동과 해방 이후 정화 운동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조계종단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을 뿐더러 한국불교 창창가풍을 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다.



포천 신흥사 범당전립 완공을 위한 모연문



귀의 상보하옵고

화엄 정토에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은 이제 부터 활짝 걷히고 새 광명이두루 비쳐어 법력이 흥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승승 계수상배하옵고 청신사녀 백의 단원께 한 봉사 이루고자 인연 모으는 글 올립니다. 빈도는 기도 승으로서 9년 3월초에 의발단신으로 경기도 포천 관인에 위치한 보개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동기는 크게 말하면 인연이겠고 다음엔 빼어난 경치와 심당한 옥계수에 끌려 들어왔습니니다. 보개산에 들어와서 수행하다 보니 처흥 이 산이 예사산이 아니라 절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 좋고 물 맑은 이 산에 여법한 도량하나쯤은 있어, 해오름에 범종소리가 은은히 들릴때도 한때 그렇지 않아서 이산의 동서상방을 편담하여 보았더니 옛 절터는 수 없이 많은데 인적이 끊어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사지는 전부 국방부 소유가 아니면 어떤 재벌의 소유로 점유되어 있어 개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625년에는 38이북이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어느 문헌을 보니 풍악(樞岳) 도인 운일장로는 금강산, 오대산, 보개산 이렇게 삼산을 조선의 명산으로 꼽았다 하였고 신라 말 이조 중엽에 이르기 까지 60여개의 대소 사찰이 건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빈터만 산재(散在)하고 있으니 서글프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니다.

소승은 그 때부터 한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꼭 여법한 도량하나를 세우리라" 그렇게 몇년이 흐른 후 경기 연천 소재 부곡의 옛 '지장암터' 밑에 조그만 암자 하나를 세웠다. 군작전상 지장을 준다고하여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때문에 다시 옛 "신흥사"터 있는 곳으로 넘어와서 정진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절터 일만한 곳을 시주하는 보살이 있어 서원의 결실을 절감하며 작년 9년 3월에 범당30평, 요사60평, 기타 부속건물 20평을 허가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범당 마저 완성 못한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시대 탓인지 덕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이야 의발삼수에 걸망하나 그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수겸의 부처님 옷 입어 당생에 영정만 팔심으로 작의 공을 쌓으시는 불자님들의 손길이 닿아 이곳에 아주 아담한 도량 하나를 봉축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소승 요즘엔 한달에 화엄경80권 일주로 천일정진을 작정하여 백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형일 정진 서원은 천하태평 국태인안 남북통일인 바 불자께서 동참하시는 의미로 일일등(一人燈) 서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역천겁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속에 참선하고 백법(白法)의 인연이 닿아졌으면 후세에 어디서도 보살행으로서 역천겁의 서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생이 말차고 축복 받는 일생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주지 석 청 담 합장



불사(佛事)중인 범당

온라인번호

▷국민은행: 216-21-0535-788
▷농협: 225020-52-011080 예금주: 서원 집
▷우체국: 102004-0023518-12
※포천신흥사 법당이 시주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공덕인연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임원으로 온라인 기부번호를 곁히 적어 놓으셨으니 불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리 861번지 신흥사
▷전화 0357) 534-2490